

## 북유럽 그림책에 나타난 트롤의 성격 변화 분석

이 문 정\*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서 기원한 일종의 괴물이다. 그러나 트롤이라는 인물은 신화의 서사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서도 친근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북유럽 그림책에 나타난 트롤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어린이의 문화 현상을 새롭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롤의 성격은 인간과 자연, 사회와의 관계 변화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첫째는 신화 속의 트롤은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혹독한 자연의 모습을 은유한다.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배회하는 두려운 존재로서의 트롤을 탄생시켰다. 둘째는 전래 동화 속의 트롤은 인간을 동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보인다.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의 위협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트롤은 물리칠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인간 세계 내부에 있음을 반영한다. 셋째는 20세기 이후 현대의 그림책 속에서 트롤은 개개의 인간, 특히 어린이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인간과 분리된 개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이질적인 성격

\*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트롤은 고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고정된 성격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트롤, 북유럽 신화, 전래 동화, 그림책, 괴물

##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북유럽 및 북유럽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토르’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유행함에 따라 북유럽 신화에 대한 흥미도 많아지고 있다. 북유럽 신화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함께 서양문화의 근간이 되는 신화이며 특히 유럽 북부 민족의 문명과 문화,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괴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미노타우루스, 메두사, 켄타우스, 스피크스, 히드라 등 다양한 모습의 괴물들이 등장한다. 신화에서 괴물은 영웅과 함께 등장하며 영웅의 용맹스러움을 증명해주는 기제로 작용한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일종의 괴물이다. 신과 인간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괴력을 발휘하여 신을 위협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괴물(怪物)은 괴상한 물체나 괴상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괴상하다는 것은 보통과 다른, 마땅한 도리나 이치에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8). 따라서 괴물은 그 본성이 보통과 달라서 알 수 없거나 본성을 초과해버린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 가급적 멀리해야 할 두려운 존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강상순, 2016).

괴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괴물은 신화나 판타지의 서사 속에서만 존재하며 서사 속에서도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나 등

장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첨단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서도 괴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좀비, 뱀파이어, 휴머노이드와 사이보그, 돌연변이와 수퍼히어로 등,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다양한 변종의 괴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문형준, 2018). 이러한 관심은 최근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괴물의 의미와 상징, 탄생과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고영진, 2008; 박숙자, 2014; 박종우, 2016; 송아름, 2013; 윤택욱, 2011; 임정식, 2017; 이영준, 2013; 하승우, 2012)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괴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트롤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트롤》이라는 애니메이션영화가 개봉되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워크래프트’ 등과 같은 게임에서는 다양하고 인기 있는 트롤 캐릭터가 복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롤은 현재, 현대 사회에 실제 존재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세계에 있는 인터넷 트롤(internet troll)이 그것이다. 인터넷 트롤은 인터넷 세계의 용어 중 하나로, 인터넷 문화에서 선동적인 논쟁거리나, 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내용,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 등을 고의적으로 공용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모임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가리킨다(강상순, 2016). 이처럼 북유럽 신화의 괴물로 등장했던 트롤은 현재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 공존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린이 문학에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문학에 나타나는 트롤의 성격은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성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통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로 상징되는 트롤의 이미지가 어린이 문학에서는 한층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의 캐릭터인 ‘무민(Moomin)’은 하얗고 귀여운 트롤이며 기존의 무섭고 인간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즉 어린이 문학에서의 트롤은 미노타우루스, 메두사, 쉐타우스 등과 같은 여타 다른 괴물과는 달리, 그 성격이 최초 신화 속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형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 속에 나타나는 ‘괴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접근이며 인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과 가능하지 않게 하는 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김요한, 2016). 즉 괴물 이미지는 인간과 주변의 힘과의 역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문학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각광받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림책의 쉬운 가독성과 접근성, 글과 그림이 포함된 복합 예술성 등의 특징이 어린이,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일반인들까지도 독자로 끌어들이고 있다(김태경·전연우·조희숙, 2014). 그러므로 어린이 그림책에서 나타난 트롤의 성격이 어떻게 변형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어린이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현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린이 문학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전래동화가 편찬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 문학과 성인 문학 간에 구별이 없었으며 성인과 똑같이 신화나 전설의 영웅이야기와 같은 구전 이야기를 주로 전해 들었다(서정숙·남규, 2010; 오연주, 2006: 조정자·이현숙·이문정·곽아정, 2013). 따라서 트롤이 주로 등장하는 어린이 문학을 북유럽 신화, 전래 동화, 현대의 창작 동화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그림책에 등장하는 트롤의 성격이 신화, 전래동화, 현대 창작 동화의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특성과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북유럽 신화 : 위협적인 자연, 외부의 괴물

트롤(troll)의 등장은 북유럽 신화(Nordic myths)에서부터 시작된다. 신화란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서, 우주의 기원이나 신, 영웅들의 사적(事績), 민족 태고 때의 역사나 설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국립국어원, 2018). 따라서 북유럽 신화는 유럽 북쪽 지역에서 전해져오는 게르만 민족의 일파인 노르드인들의 신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기독교로

개종되기 이전의 이 지역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북유럽 신화가 활자화 된 대표적인 기록물은 8~11세기에 서사시로 쓰여진 <古 에다(Edda)>와 12세기 무렵 아이슬란드의 스노리 스톨루손(Snorri Sturluson, 1179 ~ 1241)에 의해 산문으로 쓰여진 <新 에다>이다. 고에다는 세상의 탄생과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화 서사와 노르드인 영웅의 사랑과 공적을 다룬 영웅 서사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유럽의 다양한 전승 신화와 전설들이 이를 바탕으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요시다 아쓰히코·서수지, 2019).

북유럽 신화에 나타난 트롤은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고(古) 에다의 '무녀의 예언' 부분에는 마니(Mani, 달)와 솔(Sol, 해)이라는 거인의 아름다운 자식들이 태양을 삼키려는 하늘의 큰 늑대 스컬라리(Scolari)에게 쫓기어 매일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늑대를 트롤로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난쟁이족 드베르그(Dverger)를 트롤로 보기도 한다. 드베르그는 오딘(Oden, 세계를 지배하는 신)과 신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인 이미르(Ymir, 태초에 물 속에서 탄생한 인간 형상의 괴이한 거대 마물)의 썩은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가 변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비슷한 외형과 지혜를 갖고 있다. 이들은 긴 코가 입술 위까지 늘어진 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햇빛을 보면 돌로 변하고 갖가지 마술을 부린다. 이처럼 북유럽 신화에 나타나는 트롤은 일관된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Jakobsson(2008)은 트롤의 형태를 늑대, 산에 사는 자, 비정상적으로 강하거나 크고 추한 생물, 마녀, 악령, 귀신, 마법의 멧돼지, 이교도 아데미 등 총 1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이후 스칸디나비아 전설에서 트롤의 모습이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되어 온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트롤의 일관된 공통적 특징은 추악함, 낮설음(다름), 변화무쌍함(변신), 어둠, 보이지 않는 것, 빛(진리)을 두려워하는 것 등이다(Lindow, 2014).

트롤이 이처럼 공통 특징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는 것은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형이론이란 근본적인 개념이

나 상징,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것으로부터 많은 실제적 개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원형’과 같이 어떤 전형적인 범주 안에 포함될 때, 닮음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원초적 경험들이 인간 정신의 구조적 요소가 되어 집단적 무의식을 통해 유전되며 그것이 문학에서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입장이다(구인환, 2006). 신화에 나타난 트롤이 늑대, 난쟁이, 거인, 멧돼지, 악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개념적 원형범주 (conceptual prototype category)에 속하기 때문이다(Asma, 2009; 문형준, 2018 재인용).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괴물을 뜻하는 ‘ungeheure’는 ‘사랑스러운’ 혹은 ‘친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gehiure’에서 파생된 단어다. 여기에 반대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어 ‘un’이 붙어 괴물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어원으로 풀이하였을 때, 괴물은 사랑스럽거나 친하지 못한 것을 통틀어 의미하며, ‘크고 끔찍하고,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화나 전설 속의 동물 혹은 물체’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됨을 알 수 있다(김요한, 2016). 트롤의 경우도 ‘트롤(tröll)’의 고대 노르딕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악마(fiend), 늑대인간(werewolf), 신과 반대되는 자(jötun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Orel, 2003) 노르딕 고어에 나타나는 ‘trollfolk’는 마녀(witch)라는 뜻으로, 남자 마술사는 ‘trollmann’, 여자 마술사는 ‘trollkvinne’ 또는 ‘trollkone’라고 하고 마술 행위는 ‘trolldom’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트롤은 악한 마술적 존재(evil magical creature)를 묘사하는 것이며 신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Knutsen & Riisøy, 2007). 스웨덴의 민속학에서도 트롤을 ‘자연의 존재’로 설명하면서 앵글로셀틱의 요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보편적인 존재라고 정의하였다(Lindow, 2014). 즉 트롤은 ‘자연의 사랑스럽지 않는 것’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신화는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원리와 방식을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유기 법칙을 설명하려는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가

지고 있는 사회, 역사, 문화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Jamme & Matuschek, 2014). 그러므로 신화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인간의 근원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해주며(이영준, 2013) 우리는 이러한 신화를 통해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신화에는 항상 괴물적인 존재가 등장하며 문학의 여러 장르 중, 어느 장르보다 괴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신화이다. 이는 괴물성이 곧 신성(神性)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따뜻한 햇볕과 먹을 것, 쉴 곳 등을 제공하는 풍요롭고 자애로운 모습과 거친 파도와 산사태, 병, 죽음과 같은 불행을 안겨주는 혹독하고 잔인한 모습이다. 신화는 이러한 자연의 양면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자연의 따뜻한 모습은 신으로 승격되어 경배하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연의 난폭한 모습은 아름답고 우월한 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설명하기가 어렵다. 신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무조건 순응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사악하다해도 인간이 신을 응징하거나 처단할 수 없고 미워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같은 풍요롭고 따스한 모습 이면에 있는 흉포하고 차가운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성격의 존재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의 양면성은 신성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동시에 괴물의 등장이 요청된다(권태효, 2001; 이영준, 2013; 표정록, 2009). 자연의 조화롭고 질서있는 모습은 신성으로 형상화되고 무질서하고 변덕스러운 자연은 괴물로 표현된 것이다. 괴물은 인간의 관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참혹한 역병이나 무차별적인 재난, 재해와 같이, 합리적 인간관으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등장하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가피한 인과 고리가 된다(강상순, 2016).

또한 신화는 자연의 변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Jamme & Matuschek, 2014). 신화 속에는 신, 괴물과 함께 영웅들이 나타난다. 괴물은 초자연적인 힘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 물리칠 수는 없다.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신이나 신의 능력을 받은 영웅이며 괴물을 물리침으로 인해 그 사람은 영웅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신과 인간의 경계에 존재하는 괴물은 매

우 두렵고 설명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인간에 의해 제거되거나 극복될 수는 있다. 다만 특별한, 타고난 영웅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이영준, 2013).

이상에서와 같이 신화 탄생의 배경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표현의 양상으로 괴물이 등장하였다는 설명은 트롤의 등장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신화에는 신들의 왕이며 지식의 신인 오딘, 인류의 수호신 토르, 사랑과 풍요의 여신 프레이야, 바다와 바람의 신 뇨르드, 농사와 풍요의 신 프레이 등,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가져주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한다. 이들 신은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며 미워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괴물로 트롤이 등장하며, 트롤은 인간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혐오하는 대상이고 물리쳐야 할 존재이다. 신화시대에 트롤은 실재였다(Jakobsson, 2008). 고대 북유럽인은 신을 믿고 숭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마, 늑대인간, 흉측한 거인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트롤을 믿었다. 북유럽의 눈보라와 깊은 숲, 춥고 척박한 환경은 늘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으며 이러한 자연의 위협은 다양한 모습의 괴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신화에서의 트롤은 정확히 한 가지 형태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신과는 분리된 존재이면서 자연의 양면적인 현상을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명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초자연적 존재를 총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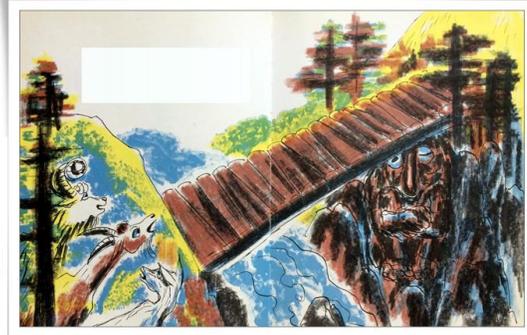
### 3. 전래 동화 속의 트롤: 인간지향적인 내부의 괴물

스칸디나비아나 스코틀랜드의 전래동화 속에 나타나는 트롤의 모습은 신화 속의 트롤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북유럽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문명화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던 한없는 두려움의 대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삽입되었다. 민담 속의 트롤은 여전히 거대하고 흉측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갖는다. 트롤은 일반적으로 못생긴 거인의 모습을 하고 산의 동굴이나 호수·강 등에

살며 마법을 잘하고 힘이 세지만 머리가 모자라 어리석고 잘 속는다고 한다. 본래 수명이 300년이 넘지만 햇별을 쬐면 터지거나 돌이 된다. 이들은 거인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거인족은 태초에 얼음덩이 속에서 태어난 거인 이미르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사이에서 독을 품고 태어나 본성이 사악하다. 이들은 신족에게 쫓기어 거인의 나라인 요툰헤임에서 살게 되고 다시 신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참패한 후, 동굴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무능한 트롤이 되었다고 한다(Arnold, 2005; Knutsen & Riisøy, 2007). 덴마크나 노르웨이 지역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인간과 비슷하지만 지나치게 큰 코와 발을 가진, 몸집이 작은, 긴 머리의 요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들은 장난스럽고 마술을 부리기도 한다. 이처럼 중세시대 민담에 나타난 트롤은 더욱 인간과 닮은 형상으로 묘사되며 다소 어리석고 머리가 모자란다.

북유럽의 민담은 구전되어 오다가 인쇄술과 어린이 문학의 발달로 인해 19세기에 들어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재화되어 편찬되기 시작한다(오연주, 2006). 북유럽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 작가로는 노르웨이의 아스뷔른센(Peter Christen Asbjørnsen/1812~1885)과 요엔(Jørgen Moe/1813~1882)이 있다. 그들은 북유럽 지역에 전해져 오던 민담을 아이들을 위한 전래 동화로 재화하여 『Norwegian Folk tales(Norske Folkeeventyr, 1842~1843)』을 출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북유럽의 대표적인 전래동화 중 하나인 <The Three Billy Goats Gruff>(『우락부락 염소 세 형제 이야기』, 마샤 브라운 그림/ 페터 아스뷔른센, 요엔 무 글, 2008)에는 사람의 형체를 한 털로 뒤덮인 커다란 트롤의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척박한 황무지가 있고 다른 한 쪽은 풀이 많은 언덕이 있는데 그 경계가 되는 다리 밑에는 트롤이 살고 있다. 세 마리의 염소는 질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그림책의 첫 장면에서 다리 밑의 트롤은 매우 흉측하고 무섭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막내 염소에게 속아 넘어가고 가장 힘이 센 첫째 염소에게 처참하게 물리침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덩치는 크지만 우둔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니까까지 한 트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1> <The Three Billy Goats Gruff>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어느날, 우락부락 솟염소 세 마리는 살을 찌우기 위해 산허리로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솟염소들은 산허리의 풀밭에 가지로 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 골짜기에 흐르는 강물 위로 다리가 있어서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기분 나쁘게 생긴 커다란 트롤이 살고 있습니다.



트롤이 “내 다리를 뚜걱뚜걱 건너오는 놈이 누구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염소는 “나다! 커다란 염소 우락부락이다.”라고 답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를 한입에 꿀꺽 삼켜주겠다.”라고 외치자, 커다란 염소는 마치 기다린 듯이 “그래, 덤벼라! 내 뿔로 네 눈알을 뽑아 버릴 테다. 그리고 네 살을 갈기갈기 찢고 네 뼈를 바스러뜨려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롤에게 달려들어서 뿔로 눈알을 뽑아내고, 트롤의 살을 갈기갈기 찢고, 뼈를 바스러뜨려서 강물에 내던져 버립니다.

출처: 『우락부락 염소 세 형제 이야기』

(페터 아스뷔센, 요엔 무 글/마샤 브라운 그림, 2008, 네버랜드)

<그림 2> John O'Brien 이 그린 <The Three Billy Goats Gruff>  
이야기 속 트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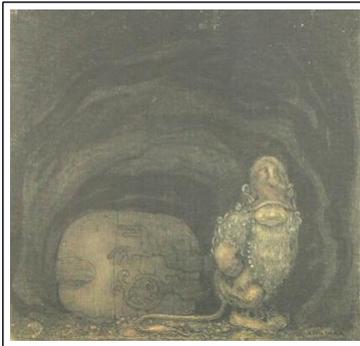
출처: 『Favorite Tales of Monsters and Trolls』  
(George Jonsen 글/ John O'Brien 그림. 1977. Random House)

1977년 출간된 『Favorite Tales of Monsters and Trolls』에는 같은 <염소 세 형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의 그림을 그린 John O'Brien은 전래동화에서 묘사되는 전형적인 트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트롤을 탄생시켰다. 전체적인 모습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얼굴은 두꺼비이며 머리에 감옥이 있는 모자와 상상의 새를 얻어놓은 트롤이 등장한다. 이 트롤은 몹시 흉측하기는 하지만 덜 위협적이다(Kuhl, 2017). 두꺼비나 새는 인간보다 약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심지어 모자 위에는 아이들이 앉아 놀기도 한다.

전래동화에서 트롤이 좀 더 친근하고 덜 두려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온 바우어(John Bauer/1882~1918)의 그림에서부터이다.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안나 발렌베리 글/ 온 바우어 그림, 2007, 상상 박물관)』에 나타난 트롤은 ‘머리는 형클어져있고 음침한 갈색 눈에 쪽 찢어진 입과 시커멓고 덩수룩한 손, 발의 못생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묘사와는

달리, 실제 바우어의 그림으로 나타난 트롤의 모습은 험클어진 보글보글 곱슬머리가 어딘지 친근하고 우습이며 따뜻함과 귀여움마저 느껴진다. 트롤의 모습이 더 이상 인간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트롤은 인간의 세계를 동경한다. 이야기 시작에서 트롤은 밤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을 배회하며 인간이 먹는 커피와 베이컨을 먹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살고 있던 산 속 동굴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자 아예 호숫가 오두막으로 내려와 인간처럼 살게 된다. 그들은 마술을 사용하여 왕실의 빨래를 해주며 살게 되고, 빨래를 하는 중 공주의 옷이 너무 예뻐서 훔치게 된다. 그리고 공주의 옷을 손녀에게 입히고 싶어 한다. 손녀를 갖기 위해 인간 며느리를 데려 올 계획을 세우고 왕실의 하녀를 강제로 아들과 결혼시키려 한다. 결국 어리석은 아들 트롤의 실수로 도둑질이 발각되어 오두막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여전히 밤마다 인간의 마을을 배회하며 인간 세상을 동경한다.

<그림 3>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엄마 트롤과 아들 트롤은 무엇보다도 커피를 끓이고 그 맛있어 보이는 베이컨을 굽고 싶었습니다... <중략>...

너무나 못생기고 부끄럼을 잘 타며 바보같이 개를 무서워하지만, 빨래 하나는 번개처럼 해 내고 값도 무척 싸다고 했습니다.

출처: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안나 발렌베리 글/ 온 바우어 그림. 2007. 상상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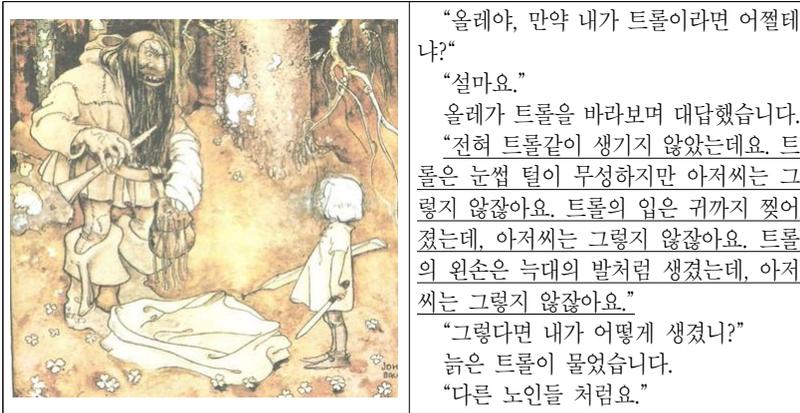
이 이야기에서 트롤은 마술을 부리고 꼬리가 있는 흉측한 모습이지만 위협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인간에 의해 살던 터전을 잃고 인간에 의해 배척당하고 쫓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리차드 커니(2004)는 이를 괴물에 대한 관

점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화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에게 자연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알 수 없는 자연의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협적이고 기괴한 존재로서의 트롤의 필요성이 제거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함에 따라 트롤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하였으며 인간에게 조절되고 제압될 수 있는 존재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신화의 서사에서 자연의 양면성, 신성의 또 다른 얼굴로 인식되었던 트롤은 과학의 발달과 근대화로 인해 위협적인 자연이 아니라 사회나 체제 내부의 이질적 요소를 표상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즉 근대 시대의 괴물은 기괴하고 예측불허의 자연과 같은 외적 존재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인간 내면의 요소를 지시하는 것으로 심화되었으며 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 동화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불안감을 표상한 것이다(강상순, 2016). 따라서 민담 속의 트롤은 초자연적인 외부의 두려움을 표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을 주로 인간 사회의 내부에서 찾는다.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 북유럽에서 가장 경계하는 이질적인 요소는 이단, 이교도였으며 트롤을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자손, 산 자와 죽은 자의 중간에서 산 속을 배회하는 존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Knutsen & Riisøy, 2007). 그리고 트롤은 폭력과 탐욕, 금기와 위반, 성욕과 질투 등 인간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주 저지름으로써 이를 표상하는 존재가 된다.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이야기에서 트롤은 도둑질, 거짓말, 납치 등을 서스름없이 저지르며 인간 세계의 도덕적 규범을 어기고 위협하는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요소는 트롤을 내쫓음으로써 극복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책의 또 다른 이야기 <큰 산의 늙은 트롤>에서 트롤은 흉측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수룩하다. 늙은 트롤은 소년의 염소 두 마리를 훔쳐간다. 소년의 부모는 트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집 안에 숨어있으라고 한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을 납치하러 온 트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염소를 찾기 위해 따라나선다. 그리고 트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준다. 그러자 트롤은 순해져서, 훔쳤던 새끼 염소까지 돌려주며 소년을 집으로 보내준다. 이처럼 트롤은 여전히 흉측한 얼굴의 거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훨씬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비슷한 감성을 지닌다. 더욱이 매우 명칭해서 어린이인 주인공의 꾀에도 잘 속아 넘어가며 오히려 이득을 주기도 한다.

<그림 4> <큰 산의 늑은 트롤>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출처: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안나 발렌베리 글/ 윤 바우어 그림. 2007. 상상 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등장한 19세기는 서양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이며 이때 새롭게 부와 지식을 축적한 부르주아지 계급이 그 당시의 신중계급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동화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풍습, 산업사회에서의 삶의 방식을 함축적으로 반영한다. 과거 신화에서 괴물을 물리친 자는 타고난 영웅이며, 이들 영웅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래동화에서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하여 과거의 용사나 기사들처럼 힘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개인의 재치와 지혜를 활용한다. 전래동화에서의 영웅들은 호전적(好戰的)이고 호색적인 성향을 지닌 귀족사회의 용사나 기사, 왕자들이 아니고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덕적 품성과 매너를 갖춘 신사들임을 보여준다(이영준, 2013).

스웨덴의 카발리우스(Gunnar Olof Hyllén-Cavallius, 1819~1889)와 스테펜스

(Stevens, 1813~1895)가 편찬한 민화집 『Svenska folksagor』 (Bohusläns Grafiska, 1986)에 수록된 <거인과 많이 먹기 시합을 한 소년> 이야기에서 소년은 크고 무서운 트롤 거인을 용기와 피로 물리친다. 바위 부수기 시합에서 소년은 바위 대신 치즈를 짜고, 멀리 던지기 시합에서는 새를 던지며, 많이 먹기 시합에서는 가죽 주머니에 죽을 몰래 버림으로써 승리를 하고 마침내 거인을 물리치게 된다.

<그림 5> <거인과 많이 먹기 시합을 한 소년>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출처: 『Svenska folksagor』 (Cavallius & Stevens, 1986. Bohusläns Grafiska).

<큰 산의 늙은 트롤>과 <거인과 많이 먹기 시합을 한 소년> 이야기에서 트롤과 겨루는 상대는 어린 소년이며 소년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용기와 지혜이다. 영웅이 괴물을 물리치고 여인을 구하는 식의 과거, 전통적인 ‘낭만적 신화’의 원형들은 전래동화라는 새로운 형식을 빌려 재구성되고 당 시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다(Zipes, 2006). 이처럼 동화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 플롯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소망과 정서를 반영하여 세부 사항을 변형시킨다. 특히 19세기에 편찬된 전래동화는 부르주아지들이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을 반영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달픈 삶에 위안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Bottigheimer, 2009). 즉 전래동화는 부르주아지들이 가진 ‘정신의 기본 유형을 분명하게 비추어주는 거울’(Franz,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뒤바뀐 아이>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출처: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안나 발렌베리 글/ 온 바우어 그림. 2007. 상상 박물관)

트롤의 인간지향적인 모습은 <뒤바뀐 아이> 이야기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트롤의 나쁜 속임수 중 하나인 ‘체인지렁’에 바탕을 둔 이야기이다. 아빠 트롤은 자신의 트롤 아기보다 금발머리, 하얀 피부의 인간 아기 공주를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를 한다. 바뀐 트롤의 딸은 인간세계에서 제멋대로 자라난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는 하루 종일 담요를 꼭 뒤집어쓰고 누워있거나 버럭 소리도 지르고, 꼭두새벽에 마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깨워서 말을 타는 등 왕과 왕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난다. 반면 공주는 트롤의 집에서 궂은일을 하며 착하고 순종적으로 자라난다. 그러나 트롤의 딸은 공작과, 공주는 트롤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자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고, 마침내 체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공주는 금발머리, 하얀 피부의 예쁘고 착한 어린이를 상징하며 트롤은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표상한다. 이러한 트롤 아이의 비규범적이고 불규칙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성인이 되어 진짜 공주가 돌아옴으로써 해결이 된다. 이는 당시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린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어린이의 성장과정은 성인 세계의 규범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민담도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조직화할 수 있

는 형식(form)과 형태(shape)를 제공한다. Lincoln(1999)은 모든 옛이야기의 서사형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민담을 전해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삶의 의미 등을 제공받는다(Bettelheim, 1898; 이영준, 2013 재인용).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역사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민담에 담겨있는 사회적 양태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가 변함으로써 함께 역동적으로 변용된다(정재서·수용·송기정, 2015).

따라서 자연의 포악한 모습에 대한 공포가 신화 속의 괴물을 등장시켰다면, 이후에는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른 형태의 괴물,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무질서의 징후들에 대한 두려움이 괴물로 나타나고, 괴물이 완벽하게 처치되고 처벌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책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리차드 커니, 2004). 그러므로 괴물은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주는 하나의 매개인 셈이다(박숙자, 2014).

특히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담는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있어 트롤, 괴물 형상은 즉각적으로 폭압적인 권력자 혹은 프로이트가 말한 원초적 아버지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어린이 안에 있지만 어린이가 인정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충동이 마치 어린이를 엄습하는 괴물처럼 외부로 투사되기도 한다(강상순, 2016). <우락부락 염소 세 형제 이야기>에서 막내, 둘째, 첫째는 어린이들이 거쳐야 하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이며 트롤은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권위자, 권력자(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뒤바뀐 아이>에서 트롤은 어린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통제되지 않은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활자화된 북유럽의 전래동화에서 나타난 트롤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며 인간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인간지향적인 것으로 묘사 된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활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인간과의 교류도 많아진다. 아빠 트롤, 엄마 트롤, 아이 트롤 등 가족을 이루면서 인간 사회와 비슷한 형태로 생활한다. 또한 자신을 이해

해주는 따뜻한 말이나 칭찬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감성을 보이기도 한다. 신화 속에서 신과 인간의 경계에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트롤은 오히려 인간을 동경하고 때로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평범한 인간들이 인간다움을 무기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형되었다. 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두려움의 대상을 인간 외부에서부터 내부의 것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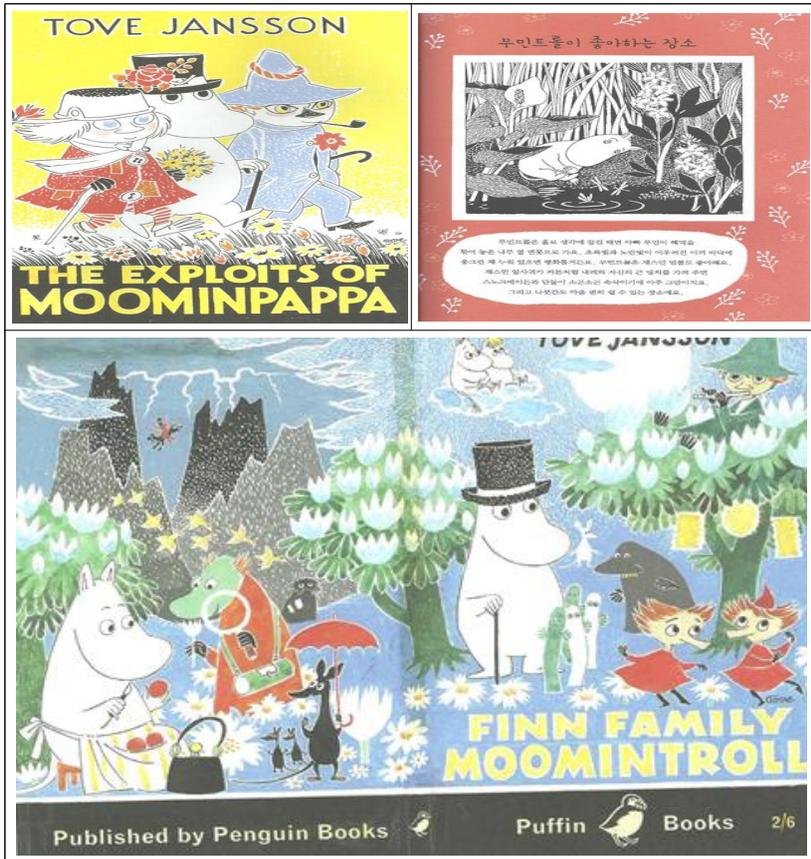
#### 4. 20세기 이후 그림책에서의 트롤 : 인간에 동일시된 괴물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변화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또한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도 트롤은 여전히 인기 아이টে姆으로 등장한다. 핀란드의 스웨덴계 작가인 토브 안손(Tove Marika Jansson, 1914~2001)은 1945년 『무민 가족과 대홍수(The Moomins and the Great Flood)』을 출판하였다. 이는 무민 계곡에서 무민 엄마와 사는 트롤 요정인 무민(Mumin)의 세계를 묘사한 첫 번째 책이었으며, 이후 무민 『골짜기에 나타난 혜성(Comet in Moominland, 1946)』, 『마법사의 모자와 무민(Finn Family Moomintroll, 1948)』 등 무민 가족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출판하면서 무민은 전 세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그림책이 되었다. 무민에서 트롤은 이제 더 이상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무민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요정이었으며 인간에게 해가 되고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성격은 완전히 제거되고,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순화된 재미있는 모습의 트롤이 탄생되었다. 또한 트롤 요정의 마술 세계가 펼쳐지는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따뜻함, 친밀감, 공존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더욱이 이제 트롤은 인간 아이들 그 자체의 모습으로 동일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무민 트롤의 가족과 친구들이 펼치는 생활과 모험, 고민은 낯설지 않다. 갓 구운 팬케이크를 먹으며 시끌벅적한 파티를 여는 친구들, 친구가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엄마와 아빠 무민, 종종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모험을 즐기는 무민 아빠 등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즉 모습은 트롤 요정 무민이지만 무민의 행동, 생각, 생활 모습은 실제 어린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어린이를 의인화한 것이다.

<그림 7> 트롤 무민의 모습



출처: 『가장 완전하게 만든 무민』  
(필립 아다 &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2018, 사파리.)

이처럼 트롤이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넘어 인간과 동일시되는 모습은 셀마 라게를뢰프(Selma Ottilia Lovisa Lagerlöf, 1858~1940)의 『트롤의 아이(Troll och Människor, 191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 <트롤의 아이>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아빠가 트롤의 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졌을 때 트롤도 저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트롤을 구해 내지 않았다면 저는 불에 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아빠가 트롤의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트롤도 저를 떨어뜨렸고, 엄마가 트롤의 아이에게 개구리와 거미를 주었을 때 트롤도 제게 버터 바른 빵을 주었어요.”

“그런데 트롤이 어떻게 널 보내 주게 된 거니?”

“그건 엄마가 트롤의 아이를 위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아빠를 포기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출처: 『트롤의 아이』 (셀마 라게를뢰프 글/ 심현경 그림, 2007. 이상의 날개)

이야기는 트롤이 인간의 아이와 트롤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민담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농부는 자신의 아이와 바뀐 트롤의 아이가 못마땅하여 구박하지만 엄마는 트롤의 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 어느 날 성장한 진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농부는 자신이 트롤의 아이를 구박하고 있을 때면 자신의 아들도 트롤에게 똑같이 구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농부의 아들과 트롤의 아들은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다. 트롤의 아이와 농부의 아이가 동시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대목에서 전래 동화 <뒤바뀐 아이>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트롤의 아이와 농부의 아이가 사실은 동일인이었음을 말해준다.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리 호지킨슨 글/그림, 2017, 사파리)에서는 뒤 바뀐 트롤의 아이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모습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어린이들의 특징을 상징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트롤 티머시와 인간 타비사가 비슷한 이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티머시가 오히려 인간 아이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격을 가졌고 타비사가 트롤 같이 시끄럽고 산만한 성격을 가졌다. 어느 날 머리를 마주친 티머시와 타비사는 서로 바뀌게 된다. 산만하고 시끄러운 타비사와 함께 노는 트롤 친구들은 티머시가 그림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티머시를 얻은 인간 엄마, 아빠도 재미가 없고 시끄러운 타비사가 그림다. 이는 티머시와 타비사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그림책에서는 어린이 자체의 본성과 삶을 강조하면서 본래 어린이의 모습을 바꾸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뒤바뀐 아이>와는 다른 결말을 맺게 되는데, 타비사가 순종적이고 안전한 숙녀로 성장하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성인들이 타비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한다.

<그림 9>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에 나타난 트롤의 모습



출처: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리 호지킨슨 글/그림, 2017, 사파리)

현대에 와서 괴물은 공포의 성격이 완전히 거세된 순화되고 귀여운 이미지로 변화된다. 괴물의 동물적 모습과 요소는 점차 인간적 존재로 변형되고 인간과 융화된다(김윤아, 2009). 따라서 트롤은 곧 어린이이고 어린이 안에 트롤이 내재되어 있다. 『트롤의 아이』,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에서 나타난 어린이와 트롤은 사실은 하나로 동일시될 수 있다. 어린이 안에 내재된 트롤의 무질서한 성격에 대해 사회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프로이트는 이를 ‘낯설은 두려움(Das Unheimliche)’이라고 불렀고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경험을 ‘애헤션(abjection)’이라고 하였다(강상순, 2016). 낯설은 두려움은 한 때는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낯익었던 것이지만 현재는 낯선 것으로 회귀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여기서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낯익었던 것은 바로 유아기 시절의 느꼈던 억압, 믿음, 소망 등을 의미한다(문형준, 2018). 어른들은 어렸을 때의 생각, 행동패턴, 어린이의 특성들이 한 때는 익숙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낯설고 불편하다.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극복되고 망각되었다고 믿었던 이 단계들이 여전히 자각할 수 있는 잔존의 흔적들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괴물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던 낯익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괴물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와 가장 밀접한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망각으로 인해 불편하고 두렵게 느끼는 것이다(문형준, 2018).

이처럼 트롤은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가 되기 위해 억압 혹은 배제해버린 것이다. 내면의 억압과 마주하였을 때 인간은 매혹감과 반감의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불편감을 준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의 타자성을 크고, 힘이 세고, 날카로운 이빨, 거칠은 트롤의 모습으로 타자화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공포를 시각화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푸코는 이를 새로운 형태의 괴물, 즉 ‘정신적 괴물’이라고 칭하였으며 이 괴물은 인간 외부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괴물이며 기존의 괴물의 경계와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존재론적 개념이라고 하였다(박숙자, 2014).

현대 어린이 그림책에 나타나는 트롤도 현대의 괴물 형성 원리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괴

물의 극복과정은 어린이의 성장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괴물로 대변되는 트롤의 사회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어른들의 세계이며 현실의 두려움과 부모에 대한 보복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성장과정에서 무수한 내면의 정신적인 공포를 이겨내어야만 한다(박숙자, 2014).

그러나 전래동화에서와는 달리 현대 그림책에서는 극복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어린이에게 현실원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서병철, 2017). 『트롤의 아이』에서는 어른과 어린이의 상하 권력관계를 대변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폭력적 상처로 되돌아갔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에서는 공포의 기제를 통해 현실원칙에 따라 어린이가 살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삶, 자체를 강조는 새로운 형태의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어린이 그림책에서 트롤은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두려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동인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질베를 쥐랑, 2000).

## 5. 결론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의 일종이다. 트롤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새로운 캐릭터로 생성되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처럼 하나의 인물이 고대에서 현대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트롤이 특정한 상징적 의미나 사회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트롤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어린이 문화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야기의 서사는 당 시대 사람들이 세계의 생성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북유럽 그림책에 나타난 트롤의 성격은 이러한 기제에 의

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신화 속의 트롤은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다양한 형태의 괴물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은 자연을 상징한다. 즉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배회하는 두려운 존재로서의 트롤을 탄생시켰다. 둘째, 전래동화 속의 트롤은 인간을 동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보인다. 나약한 인간들이 문명사회를 이루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의 위협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 사회 내부의 비도덕성, 반윤리라는 것을 상징한다. 셋째, 20세기 이후 현대의 그림책 속에서는 트롤이 인간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인간과 분리된 개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이질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트롤로 대변되는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치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트롤은 고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고정된 성격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트롤의 변형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1966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하나의 텍스트 내에 일어나는 텍스트적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즉 모든 텍스트는 이전 텍스트의 인용 모자이크로 구성되며 다른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화나 전설,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괴물이나 요정은 인간 심리와 상상력, 사회적 기능의 복합적인 산물이며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발전한다고 하였다(김윤아, 2009; 조경식, 2005). 모든 텍스트는 이전의 다양한 텍스트들이 흡입되고 변형된 것이며 텍스트들이 변화되고 변형될 때는 인간의 상상력과 심리, 사회적 기능 등이 기제로 작용된다는 것이다(김윤아, 2009).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원리에 의해 트롤의 캐릭터도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심리와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신화와 전래동화의 이전 텍스트들을 인용하고 혼합, 흡수하여 변주되고 재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롤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북유럽 신화와 전

래동화, 현대 창작 그림책을 통해 트롤의 성격과 외형은 계속 변화하여 왔지만 인간의 두려움과 낯설음을 상징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롤이 원형이론에 의해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즉 트롤은 다른 괴물처럼 하나의 구체적인 형체로 정의되지 않고 중복되는 유사성에 의해서 설명되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 모두를 빗대는 은유(문형준, 2018)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유지하기도 쉽고,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변형도 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괴물인 메두사는 ‘머리카락은 수많은 독사이며, 톱니같은 치아, 멧돼지의 엄니, 청동 손, 황금 날개, 튀어나온 눈, 긴 뱀 혀’ 등과 같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성격과 모습의 변형이 어렵다. 반면 트롤은 인간과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사물, 안정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질적이거나 혼종적인 사물, 비도덕적이기 쉬운 비정형적 사물을 총칭(강상순, 2016)하는 원형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트롤은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원형은 간직한 채, 상호텍스트성의 원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되어왔고, 어린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역할을 담당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상순(2016). 괴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한국 고전서사문학 속의 괴물. *우리어문연구*, 55, 43-73.
- 권태효.(2001). 북유럽 신화집 에다와의 대비를 통해 본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본질. *민속학 연구*, 9, 87-115.
- 고영진(2008). 괴물에 대한 기록 : 지괴의 교육학. *비평문학*, 30, 205-229.
- 구인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서울: 신원문화사.
- 국립국어원(2018). 표준국어대사전. <http://krdic.naver.com>.
- 김요한(2016). 괴물열전: 그리스 신화의 여성 괴물.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5, 211-226.
- 김윤아(2009). 요괴 캐릭터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6, 141-163.
- 김태경·전연우·조희숙(2014). 생태적 감수성으로 읽는 시그림책.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97-124.
- 리차드 커니(2004).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고양: 개마고원*.
- 문형준(2018). 괴물서사란 무엇인가? - 괴물서사에서 파국서사로 나아가기 위한 일곱 개의 단편. *비교문화연구*, 50, 31-51.
- 박숙자(2014). 괴물의 탄생: 무감정, 반윤리, 비죽음 -김승옥의 「환상수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4), 133-155.
- 박종우(2016). 한국 한시의 괴물 형상에 대한 일고찰. *우리어문연구*, 55, 75-94.
- 서정숙·남규(2010).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 서병철(2017). 상호텍스트성 관점으로 모리스 샌닥의 삼부작 읽기. *스토리앤 이미지텔링*, 14, 269-291.
- 송아름(2013). 괴물의 변화 :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9(2), 186-224.
- 오연주(2006). 스웨덴 어린이용 그림책의 발달사.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7(2), 1-30.

- 윤택욱(2011). 푸코를 읽는 한 가지 방법 - ‘괴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철학연구*, 12, 49-72.
- 이영준(2013). *신화, 전설, 동화 속에 나타난 ‘낭만적 신화’와 ‘원형적 욕망’*. 동화와번역, 16, 241-265.
- 임정식(2017). 괴물영화에 나타난 영웅 탄생의 새 양상 - <괴물>, <차우>, <7광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9, 105-134.
- 정재서·수용·송기정(2008). *신화 상상력과 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부.
- 조경식(2005). 문화적 기억/망각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 *뫼히너와 현대문학*, 27, 271-299.
- 조경자·이현숙·이문정·곽아정(2013). *어린이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질베를 쥐랑(2000).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파주: 살림.
- 표정록(2009).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몬스터’ 신화 상상력의 놀이적 기호작용 연구: 어린이 문화에서 일어나는 신화의 시물라시옹 기호작용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23, 253-284.
- 하승우(2012). <괴물> : 경험적 역사와 실제의 비역사적 중핵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 *비평과 이론*, 17(1), 137-159.
- Arnold, M. (2005). Hvat er tröll nema þat?: The cultural history of the troll. In Shippey, T. (Ed). *The Shadow-Walkers: Jacob Grimms Mythology of the Monstrous*. (pp.111-155). Turnhout: Brepols.
- Asma, S. T. (2009).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 Bettelheimer, B. (1898). *The Use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Vantage.
- Bottigheimer, R. B. (2009). *Fairy Tales: A New History*. New York: New York State UP.
- Franz, Marie-Louise von. (1996).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Boston: Shambhala.
- Jakobsson, Á. (2008). The Trollish Acts of Þorgrímur the Witch: The Meanings of Troll and Ergi in Medieval Iceland. In Viking Society for Northern

- Research(Eds). *Saga-Book vol.32.* (pp.39-68).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Jamme, C., & Matuschek. S. (2014). *Handbuch der Mythologie.* Hesse: Darmstadt.
- Knutsen, G. W., & Anne, I. R. (2007). Trolls and Witches. *Arv: Scandinavian Journal of Folklore*, 63, 31-69.
- Kuhl, J. (2017). Decoding the Success of a Picture Book About Monsters and Trolls : There's a reason John O'Brien's 1977 illustrations still have obsessed fans. *Children's Literature Week*, June, 12-16.
- Lindow, J. (2014). *Trolls: An Unnatural History.* London: Reaction Books.
- Lincoln, B. (1999). *Theorizing Myth: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lia, K. (1980). *Word, Dialogue and Novel" Desire in Languag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eud, S. (2003). *The Uncanny.* Trans, David McClintock. London: Penguin.
- Orel, V. (2003). *A Handbook of Germanic Etymology.* Leiden: Brill.
- Zipes, J. (2006). *Fairy Tales and the Art of Subversion.* New York: Routledge.
- Zizek, S.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 그림책 -

- 리 호지킨슨 글, 그림(2017). 내가 만일 트롤이 된다면. 서울: 사파리.
- 셀마 라게를뢰프 글, 심현경 그림(2007). 트롤의 아이. 파주: 이상의 날개.
- 안나 발렌베리 글, 은 바우어 그림(2007).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서울: 상상 박물관.
- 페터 아스뷔온센, 요엔 무 글, 마샤 브라운 그림(2008). 우락부락 염소 세 형제 이야기. 성남: 네버랜드.
- 필립 아다,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글(2018). 가장 완전하게 만든 무민. 서울: 사파리.
- Gunnar Olof Hytlen-Cavallius, George Stephens, Harry Lundin (Editor). (1986). *Svenska folksagor.* Munkedal: Bohusläns Grafiska.

<Abstract>

## **Analysis of the character change of the trolls in the Nordic picture book**

Lee, Moonjung\*

The troll is a kind of monster in Nordic mythology. However, the character Troll does not stay in the narrative of myth, but is constantly changed and transformed from the present to the present, and also appears as a friendly figure in the picture book for children. By analyzing how the nature of the trolls in the Nordic picture book has changed, we can understand the culture phenomenon of children newly. The nature of trolls has been changed into three form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nature and society. First, trolls in mythology appear in various forms as threatening and destructive supernatural beings, and they symbolize the harsh nature of nature. Humans who have been weak in front of nature have created a troll as a fearful being roaming in the dark. Secondly, the troll in the fairy tale is a human-oriented person who wants to resemble and admire human beings. Overcoming some of the natural dang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science, trolls are shaped as being able to defeat and reflect the fear that the object is not in the outside but in the human world. Third, since the 20th century, in the modern picture book, trolls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 humans, especially children, and are represented as symbols representing the heterogeneous nature of human beings rather than individuals separate from humans.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trolls have not remained one fixed character from the classical period to the present, but are

---

\*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onstantly evolving by the intertextuality.

**Key Word: Troll, Nordic myths, Fairy tale, Picture books, Monster**

---

성명: 이문정  
소속: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 moonjung@hoseo.edu

논문 접수일: 2019.5.29.  
수정원고 접수일: 2019.6.24.

논문심사 완료일: 2019.6.22.  
게재 확정일: 2019.6.24.